

실시설계용역 재개…내년 6월 1단계 구간 착공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본격화

공론화를 통해 78.6%의 압도적 건설 지지를 이끌었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용역이 재추진되는 등 건설 작업이 본격화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시작했다. 2단계 구간도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재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정한 공론화 진행을 위해 그동안 중단됐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용역과 행정절차 대부분이 재개되거나 정상 가동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건립 찬성’ 권고안을 받은 이 용섭 광주시장이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관련 행정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공론화 논란으로 지난 8월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가 모두 중단된 지 3개월 만이다. 1단계 구간 용역은 83%까지, 2단계 구간 용역은 10%까지 진행됐다.

광주시는 조만간 1단계에 대한 환경·교통영향평가가 실시할 계획이다. 용역·영

중단 3개월만에 절차 진행

환경·교통영향평가도 실시

1단계 17km 2023년 개통

2·3단계 2025년까지 순차 준공

향평가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 1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한다.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서 사업을 승인하면 내년 6월까지 1단계 구간을 착공할 방침이다.

또 공론화를 이유로 전면 중단됐던 실시설계와 환경영향성평가를 비롯해 관련 용역과 행정 절차 등도 다시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2호선은 2003년 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고, 2004년 예비타당성 조사도 비용편익분석(B/C) 1.42로 통과했지만, 노선과 국비 지원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착공이 연기됐다.

2011년 11월 3호선이 사라진 대신 2호선이 지상고가방식 확대순환선(41.7km

)으로 변경돼 승인·고시됐는데, 지상고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2013년 12월에는 저심도지하 방식(41.9km)으로 다시 바뀌었다. 민선 6기인 2014년 7월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2016년 2월 ‘100인 시민위원회’에서 재추진을 결정, 같은 해 12월 30일 광주시가 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했다.

1단계 구간은 2023년 개통 예정으로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도캠프경시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을 잇는 17.06km이다. 2단계 구간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 2단계는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장을 연결하는 20km 구간이다. 1단계와 2단계가 연결돼 순환선으로 운영된다. 남광주역과 상무역이 환승역이다.

2025년 개통 예정인 3단계는 지선 개념으로 백운광장~진월~효천역을 연결하는 4.84km 구간이다. 3단계에 대한 행정절차는 내년 초 시작되며 2021년 착공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중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포트모르즈비 시내 스탠리 호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안례를 받으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로, 작년 12월 중국 국빈방문 때 이어 11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아세안·APEC 5박 6일 일정 마치고 귀국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저녁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5박 6일간의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출국,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투

자 확대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루자고 제안하는 등 신남방정책 확산에 주력했고 내년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문 대통령은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1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과 연례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평

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스콧 모리스 호주 총리,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와도 정상회담도 가졌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했고, 국가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혁신기금’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시즌2’ 40개 사업 3조 9000억 투입

광주시·전남도·16개 공공기관 오늘 공공기관장협의회서 확정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앞으로 5년 간 추진할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에너지 특화사업 등 총 40개 사업, 3조 9000억원 규모다. 전남도와 광주시, 빛가람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 대표들은 19일 민선 7기들어 처음 공공기관장협의회를 열어 ‘혁신도시 시즌2’ 사업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18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에 따르면 전남도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5년동안 40개 사업, 65개 세부사업 3조 9793억원 규모를 발굴, 지난날 초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는 혁신도시지원단

이 지난 7개월동안 토론회와 점검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에너지사이언스파크·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 선도 도시 조성 등 혁신도시 에너지특화 사업, 정주여건 사업, 주변 지역과 상생발전 사업, 인재육성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인 지역제품 우선 구매제도(특별지원 지역 지정)와 대학캠퍼스 설치 특례 제도, 투자기업 임대료 또는 분양이자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출했다.

전남도와 광주시, 시·도 교육감, 광주 남구청장, 빛가람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 대

표들은 19일 오후 2시 나주 한전KDN에서 ‘공공기관장협의회’를 열어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 후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열리는 공공기관장협의회는 민선 7기들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 광주 남구청장이 참석한다. 광주 남구는 혁신도시와 가장 가까운 지자체여서 교통·교육 등 협력 사항이 많다.

특히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 발굴한 공공기관 지역발전 사업 30건 484억원 규모의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전남도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역제품 구매 확대,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협조와 협력을 구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천안 국립 종축장 합평 이전 23일 결정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단독 응모 1차 심사 통과…소·돼지 가축 개량 사업 수행

전남도 “스마트 축산시스템 구축 중심지로 거듭날 것”

충남 천안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성환종축장)의 합평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전 후보지 공모에 경쟁자 없이 합평군이 단독 신청한 데 이어 합평군이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1차 심사를 통과했다. 현지실사와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23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18일 전남도와 합평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후보지 선정 1차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해 합평군이 단독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주여건·접근성·연구적합성·방역·연계성·지자체 지원 등 기본요소를 평가했다.

합평군은 필수면적 확보와 조치 조사료 연구 여건, 지자체 지원계획 등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1차 심사를 통과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선정위원회 심사위원, 발주처·주관사 관계자들과 함께 20~

21일 합평 이전 후보지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22일에는 합평군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평가회를 실시하고 이후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이전 후보지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합평군과 전남도는 경쟁 지자체가 없는 데다 합평이 조사료 재배 등에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무난히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충남 천안에 있으며 조사료 연구 개발을 통한 소·돼지 축종 개량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천안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등으로 최근 이전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전남도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로 재임할 때인 지난해부터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이전 작업을 꾸준히 벌여왔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난 1934년 이후 전국 육지부에서 유일하게 구제역 정지 지

역을 유지한다는 점, 조사료 재배 최적지 등 가축 사육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추진하는 점 등을 강점으로 유치 활동을 펼쳤다.

합평군 예정부지는 산광면 송사리 일대 612만㎡로 천안 현 부지 418만7000㎡보다 훨씬 넓다. 전체부지의 90%가량을 조사료 연구 개발을 위한 조치로 사용한다.

이전이 결정되면 이곳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소속 가축개량평가과·낙농과·양돈과·조치사료과 등 4개 부서와 이곳에 근무하는 183명(정규직 91명·공무직 92명)이 옮겨온다. 종축용 젖소 300마리와 돼지 1000마리도 함께 들어온다.

전남도는 축산자원개발부가 옮겨오면 합평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 축산시스템 구축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합평이 사료-축사-도축-가공-유통-소비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축산산업의 매카가 될 것”이라며 “최종 후보지 결정까지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광주지사 1688-1104

광주첨단점 062)974-3050

롯데관광 크루즈 전세선 운항 10주년 특별기획!

당신의 바다는 어디인가요?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대한민국 크루즈 승객 1위 기업

▶국내유일 10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아시아 최고 크루즈 여행사 상' 최초 수상

대한민국 출발 최대 크기 크루즈

11만톤급 세레나호를 만나보세요

• 1만 4천톤 • 전장 : 290m • 전폭 : 35m • 승무원원 : 3,780명 • 승무원 : 1,100명

전세선 10주년 조기예약 이벤트

선실우선배정 + 최대 30만원 할인

11월 30일까지 예약 및 완납자에 한함

4월 26일 인천항 출발

인천항 • 상해 • 후쿠오카 • 부산항

한국/중국/일본 전세선 6일

내 측 188만원부터 발코니 248만원부터

오션뷰 218만원부터 스위트 328만원부터

5월 1일, 2일 부산항 출발

부산항 • 속초항 • 블라디보스톡 • 사이카이마토 • 속초항

한국/러시아/일본 전세선 5일/6일

내 측 188만원부터 발코니 248만원부터

오션뷰 218만원부터 스위트 328만원부터

5월 6일 속초항 출발

속초항 • 블라디보스톡 • 오타루 • 아이오리 • 부산항

한국/러시아/북해도 전세선 7일

내 측 198만원부터 발코니 258만원부터

오션뷰 228만원부터 스위트 338만원부터

이색적인 감성 상해

규수 최대의 중심 도시 후쿠오카

가장 가까운 유럽 블라디보스톡

정난꾸러기 요괴마을 사이카이마토

극동문화의 블라디보스톡

미국적인 분위기의 오타루

아름다운 경관 아이오리

가경포항내역 크루즈 선실로 및 항구세,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임(자세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선택경비(관광) 있음/없음 상봉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착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이 선택에 대해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여행객의 입국은 고개별 전용 교통편으로 가능합니다. • 중국구경 : 일반여행업 제457호(서울시 중구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 일반여행업 영인번호증명 10억원 기업 • 기해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기업 • 여행물류관리센터 : 1588-8882 • 여행물류관리 : 부산항/속초항 • 최소출발 10명 • 크루즈 2인 1실 사용(임박객실 제외) • 교통편 : 항공, 버스, 크루즈선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항공기, 열차, 입장권,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